

왕궁면 냉풍시스템 지원

익산시, ICT 활용 축사 환경개선 적정 온습도 유지 생산성 향상 기대

익산시가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축사 환경개선을 지역 농가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맞춤형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폐사율 감소와 생산성 향상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총사업비 1억2000만원을 투자해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돈사

환경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돼지 밀집 사육지역인 왕궁면·상지원 등 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자동 온습도 관리를 위한 ICT 기기와 환기·냉풍시스템이 지원된다. 해당 농가는 돈사 환경 원격제어 시스템 기술을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든 환경정보를 확인·제어할 수

있으며 ICT 컨트롤러를 통한 자동 온습도 조절로 혹서기와 한절기에 적정 사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업기술센터는 겨울철 내부 온도차로 환기 시 인체 현상이 발생되고 습도가 높아져 폐사율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열교환 환기 시스템'을 지원한다. 이번 시스템은 실외의 찬 공기를 열교환기 내에서 배기열로 데워 인기시키는 에너지 절감형 시스템이다. 겨울철이나 환절기에도 충분한 환기가 가능해 돈사 내 가스를 감소시키면서 온도 변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어 내부 폐열을 활용하므로 환경 친화적이며 기존 환기시설보다 돈사 온도를 올릴 수 있어 겨울철 난방비로 인한 농가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계절 돈사 내부의 온습도 관리와 환기 기능이 가능해져 돼지 폐사율 50% 감소와 출하일령 약 5일 단축 등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익산=장영원 기자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인 故 임균수(1939.8~1980.5) 열사 추모식을 지난 18일 교내 창의공과대학 잔디광장 임균수 열사 추모비 앞에서 거행했다.

5·18 임균수 열사 추모행사 거행

원광대, 한의대 재학 중 전남도청 앞 시위 참가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인 故 임균수(1939.8~1980.5) 열사 추모식을 지난 18일 교내 창의공과대학 잔디광장 임균수 열사 추모비 앞에서 거행했다. 광주 출생인 故 임균수 열사는 원광대 한의대 분과 2학년 재학 중이던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 앞 시위에 나섰다. 계엄군 발포로 사망했으며, 5·18민주유공자로 지정돼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됐다. 원광대는 1987년 임균수 열사 추모를 위한 광장을 수덕호 주변에 만들어 추모비를 세웠으며, 지금은 건물신축으로 인해 광장을 옮겨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열사의 넋을 기리고 있다. 올해 추모행사는 박맹수 총장을 비롯해 대학 운영위원과 교직원노동조합, 한의과대학 교수, 학생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 및 설명 기도가 이어졌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복무 시절을 회상한 박맹수 총장은 "비록 광

주 현장에는 없었지만, 평생토록 희생자들에게 가슴 깊이 죄책감을 앓고 살아왔다"며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분들을 이 나라가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고 평화의 세상, 상생 공존의 세상이 되길 염원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임균수 열사를 비롯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기원했다. 또한 임균수 열사와 동기인 정명재 동문은 '임균수 민주열사를 배출한 원광대 한의과대학 동문으로서, 자랑스러운 민주 전통과 의식을 갖춘 자부심 있는 한의인으로서 앞으로도 모교가 전통을 세우어어나가는 명예의 전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임균수 열사 부친인 임병대 씨는 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아들 묘의 보습공과 사재를 털어 무등·경산장학회를 설립하고, 1987년부터 매년 아들의 모교인 원광대 한의과대학에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즈음하여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 방역수칙 준수로 감염확산 차단 노력

외국인 근로자 선별진료 실시 부처님 오신날 종교행사 주의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고비를 안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에 대한 철저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8일 강임준 군산시장은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지속적인 선제검사 확대를 위한 조치 및 방역수칙 차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에는 이날까지 총 25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5월에만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번 확진자들과 관련해 종교관련 270명의 명단을 확보, 190명이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계속 검사를 진행 중이다. 또 학교관련으로 123명을 선제검사해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최근 확진자들의 발생양상을 보면 감염경로 미상과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 일용직 근로자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불법체류와 상관없이 익명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 고용주들은 근로현장에서 마스크 착용과 음식물 섭취 시

단체식사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 부처님오신날과 주말 종교행사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고비를 안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강 시장은 "고령층 감염을 줄이고 중환자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어르신들의 백신 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군산시는 시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대응과 백신 예방접종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의회, 새만금청 앞 릴레이 1인 시위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 의원들이 지난 18일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새만금정책사업 독단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피켓시위에 동참했다. 시의회는 새만금청이 군산시민의 의사를 묵살하고 지역주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새만금 정책사업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최근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개발투자형 발전사업에 대한 민간협의회 안전성 의미가 부류된

상황에서 민간협의회 임기 공백기를 이용해 의결절차 없이 개발투자형 사업공모를 강행한 것은 군산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수상태양광 건설지역인 군산시와 무관한 부안군과 김제시의 매립용지 개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군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인근 지역주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새만금사업은 공모절차의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사업 단지 및 RE100 산단 조성 투자사업 유치 위한 인센티브가 절실한 실정이라며, 미확장된 2단계 사업 900MW에 인센티브 제공 약속을 즉시 이행해 줄 것을 호소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 모드니 직업적응훈련센터 개소

군산시는 지난 18일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모드니 직업적응훈련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속에 전주교구장인 김선태(사도요한) 주교의 축복식을 시작으로 개최됐으며 강임준 군산시장 시의회 및 유관기관장 등 약 50여명 참석했다. 사회복지법인 전주기독교사회복지회 산하 시설인 모드니직업적응훈련센터는 직업능력이 낮은 발달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센터는 기초적인 직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직업능력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해 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또는 일반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모드니직업적응훈련센터는 발달장애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생활하고 자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지역 소식통

원광대병원 간호부 40년사 발간식 개최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윤권하) 간호부(간호부장 류정임)에서는 최근 외래동 4층 대강당에서 역대 선진님들과 선·후배들의 추억을 담은 '희망을 품고 행복을 담다' 간호 40년사 책자 발간식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발간식에는 윤권하 병원장과 전 간호과장 김순덕, 전 간호부장 신화자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광대학교병원 간호부 40년사 발간'을 기념했다. 260여 페이지 분량의 간호부 40년사는 "환자의 돌봄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간호사라는 기본 철학을 토대로 그간 쏟아낸 노력과 열정, 성과를 차곡차곡 쌓아 올린 40년간의 발자취를 집대성했다. 류정임 간호부장은 "간호부 40년 추억 하나하나를 담은 이 책에는, 간호부의 역대 선진님들의 숭고한 사랑, 지난 수고로움, 열정적인 혼과 정성이 깃들여 있으며 선배님께서 지켜오신 원광대학교병원 간호부를 새롭게 큰 원으로 일궈나갈 열정이 숨 쉬고 있다."고 전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사랑상품권 모든 서비스 일시중단

군산시는 20일부터 25일까지 군산사랑상품권의 모든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지류상품권 구입, 모바일상품권 이용, 카드이용, 가맹점 환전 등 모든 사용이 중단된다.

이번 서비스 중단은 군산사랑상품권의 업무대행을 맡은 한국조폐공사의 디지털 통합데이터센터 산설로 모든 데이터 자료를 이관해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종혁 소상공인지원과장은 "군산사랑상품권 이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더욱 편리하고 안정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